

식민지 조선에서의 『만엽집』수용 양상*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번역을 중심으로-

박 상 현**

koreaswiss@khcu.ac.kr

〈 目 次 〉

- | | |
|-----------------|----------------|
| 1. 서론 | 3. 김억의 『만엽집』번역 |
| 2. 서두수의 『만엽집』번역 | 4. 결론 |

Key Words : 만엽집(Mannyouisyu), 서두수(Seo Doo soo), 김억(Kim Ok), 번역(Translation), 대중성(Popularity)

1. 서론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은 7-8세기 경에 성립됐다고 여겨지는 『만엽집(万葉集)』이다.¹⁾ 그런데 이 시가집을 현대 한국 대중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 『만엽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시가집의 존재를 아는 이들은 과연 『만엽집』을 어떤 작품집으로 기억하는가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영희가 쓴 『노래하는 역사』 시리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1)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최종편찬자로 추정된다.

언론인이자 정치가인 이영희는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1994년과 2001년에 각각 조선일보사에서 『노래하는 역사』와 『노래하는 역사 2』로 묶어 『만엽집』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²⁾ 이영희의 『만엽집』 소개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그것이 ‘조선일보’라는 영향력 있는 일간지에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거기에 게재된 내용이 한국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만엽집』에는 아직까지도 해독이 되지 않은 와카(和歌)가 있는데, 그것을 고대 한국어로 풀이할 수 있고, 또한 풀이해보면 야한 노래(歌)였다는 것이다.³⁾ 이영희의 『만엽집』 해석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별도로, 현재 『만엽집』을 알고 있는 한국의 대중들⁴⁾은 대개 “『만엽집』은 그 대부분이 고대 한국어로 옮겨졌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남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다)”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근대 곧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당시의 조선인은 『만엽집』을 어떤 시가집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 과연 현대의 한국 대중들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서두수와 김억이다.

서두수는 아카데미즘을 표방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에서 당시의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국문학(國文學)’ 곧 ‘일본문학(日本文學)’을 전공한 후, 광복 전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에서 ‘국문학’ 곧 ‘일본문학’을 가르쳤던 학자였고, 김억은 근대 최초의 시집과 번역시집을 낸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이자 번역가였다. 그런 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소개하여 『만엽집』을 당시의 조선인에게 ‘대중화’시켰다.⁶⁾

2) 『만엽집』에 관련된 이영희(1992)의 저서는 일본어로 번역되거나 그녀의 일본어 저서, 예를 들면 『마쿠라코토바의 비밀(枕詞の秘密)』(文春文庫)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되었다.

3) 대학교수이자 방송인인 김정운도 자신의 최근 저서인 『남자의 물건』에서 『만엽집』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이영희의 <노래하는 역사>는 일본향가집 <만엽집>에 남아 있는 이두문자의 옛 노래를 해석해 신문에 연재한 것이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남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인 까닭에 (.....)**”

김정운(2012) 『남자의 물건』 21세기북스 p.313

4) 여기에는 보통 일어일본학 전공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5)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에서 ‘만엽집’을 입력하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6) 물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소개된 『만엽집』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그럼 지금부터 우선 서두수의 『만엽집』번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서두수의 『만엽집』번역

서두수는 『만엽집』에 실려 있는 4500여 수(首)의 작품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1942년 11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여기서 그가 몇 수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가는 11월 2일자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다.

以下拙譯이 數로서는 그全部임으로 感意味가 그곳에서 얼마간이라도 바로 옮겨 있다면 二作品自體가 說明해줄것가태 絮說⁸⁾을삼가는터이다마는⁹⁾

이때 ‘전부’라는 것은 『만엽집』권20과 권14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를 가리킨다.¹⁰⁾ 그리고 서두수는 매일신보를 통해 89수의 병사의 노래를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

그는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번역할 것인가, 곧 번역 스타일¹¹⁾에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그는 병사의 노래를 일본 와카의 5음(音)·7음·5음·7음·7음에 따라 조선어로 번역했다고 아래와 같이 전한다.

그러나어썬 뜰수있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 적어도言數에잇서서

일본인 독자 혹은 일본어를 아는 조선인 독자에 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 내의 『만엽집』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7) 여기서 ‘치졸한’이란 표현은 서두수가 『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기면서 자신의 번역 작업을 ‘겸손’하게 나타낸 것이다.
- 8) ‘서설’ 곧 쓸데없이 지루하게 오래 이야기한다는 의미.
- 9)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월 2일자
- 10) 하지만 병사의 노래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밖에도 권7·1265번 노래, 권13·3344-45번 노래, 권20·4425-32번 노래, 권20·4436번 노래도 병사의 노래로 볼 수 있다.
- 11) 여기서는 정형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가리킨다.

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카히 그려보게한것이 이제실으라는 拙譯이다.¹²⁾

예를 들면 서두수는 권20·4341번 작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권20·4341¹³⁾

서슴는고아(5) 미에리싸그곳엔(7) 아비홀로니(5) 길고긴이내갈길(7) 참아못가서슴네(7)¹⁴⁾

이와 같이 일본 외카의 형식적 전통인 5·7·5·7·7을 준수하면서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하고자 했던 것이 서두수의 기본 방침이었다. 물론 아래의 작품과 같이 그것에서 벗어난 번역도 있기는 했지만, 서두수의 번역 방침은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권20·4321¹⁵⁾

惶恐하고아(5) 큰부르밧자와(6) 세는날부턴(5) 무속무치잠드리(7) 지어밀쳐나고서(7)¹⁶⁾

그런데 서두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했던 것일까? 다음의 인용문은 이런 의문에 충분히 답해주고 있다.

數로짜진다면 말할수업시 엄청난比例로 父母그중에도 어머니 十七首쯤은 안해와離別하기서러운 表懷를 『아모런숨김업시』 노래하고 있다 나는 이 『아모런숨김업시』 사람을 산 그들精神속에 眞正한 忠君과 愛國의 精神이 오히려 保藏되어잇음을 요지음 『防人精神』을 말하는이들에게 보여서는아니될것일까.¹⁷⁾

12)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1월 2일자

13) 橘の 美衣利の里に 父を置きて 道の長道は 行きがてぬかも

14)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1월 5일자

15)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草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

16)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1월 3일자

17)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1월 3일자

이구김살업은마음(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마음. 인용자 주)이 이 亦記念한 語感으로 힘박담은『大君』『わが大君』니하는聖上을 우르러 一死忠君을能히한다 純情이殉情을이룬다 正直한嗚咽이 偉大한慟哭을이룬다 그리하여 이에는 오직더러 퍼지지안는 **피의脈動**이同一하여서이다 이同調的인 **피의論理**이것이 바야흐로 **防人精神**이며 **眞正한日本心**이다.¹⁸⁾

위의 인용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듯이 서두수는 『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에서 병사의 정신(防人精神)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일본심’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일본심’ 곧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 ‘피의 동맥’·‘피의 논리’를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移植)’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다.¹⁹⁾

이런 번역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총 89수의 병사의 노래를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가면서 조선인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8수의 와카다.

권20 · 4321²⁰⁾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잠드니 지어밀쳐나고서

권20 · 4328²¹⁾

우리聖上 그말삼惶恐코야 기속지나며 바다별판건너가오 어버이남겨두고

권20 · 4358²²⁾

聖上의부르심 황송티밧자와 집을나서니 부여잡고서뤄하며 말하던그이어어

권20 · 4373²³⁾

오늘이제론 내사도라볼것가 우리聖上의 셴방페내가되여 길을내쳐나료니

권20 · 4393²⁴⁾

18)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1월 3일자

19) 박상현(2011) 『서두수의『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일본문화학보』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32

20)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葦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

인용은『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에서. 이하 같음.

21) **大君の 命かしくみ 磯に觸り 海原渡る 父母を置きて**

22) 大君の 命かしくみ 出で來れば 我ぬ取りつきて 言ひし子なほも

23) 今日よりは 願みなくて 大君の 醜の御楯と 出で立つ吾は

24) 大君の 命にされば 父母を 斎瓮と置きて 參出來にしを

우리聖上님 크신말삼나리다 이바어머니 神主독모서두듯 모서두고왔노니
권20 · 4394²⁵⁾

우리聖上 크신말삼어려웨라 활을잡은양 긴이밤을새울것가 기나기단어밤을
권20 · 4403²⁶⁾

聖上께서니 크신말삼어려워 구름자자진 이산저山다지나 嶺을넘어예왔소
권20 · 4414²⁷⁾

聖上께서니 크신말삼저어라 애툭고귀연 내님손써러저 섬과섬지나며가오

이들 와가 가운데 여기서는 권20 · 4328번과 권20 · 4373번 작품의 ‘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곧 그의 병사의 노래관이 이들 작품에 대한 서두수의 ‘후기’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권20 · 4328

【後記】

原歌²⁸⁾는 의히알려진 노래이다 『父母を置きて』와 『大君の 命かしこみ』는 서로 어긋나는 양보일지나 어긋나는 이感情이야 짜정眞實이다 그리고 이眞實이 그들을 크게 힘있게 하고 있다 **속임업는眞情이 속임업는忠誠을 가져오는 防人の²⁹⁾姿를 눈앞에 그리라³⁰⁾**

권20 · 4373

【後記】

原歌는 널리알리워져잇는 노래다 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몸업시 씩씩하게서 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崇嚴한國民性이다 『出で立つ吾は』라고 내가 써나간다고 고향친다 미듬직한사나히여 겨우열사람軍卒의長인 今奉部與曾布도 이리케感動하다 **임금님의방패-그도御로修飾한방패라고 썬내는忠誠이**

25) 大君の 命かしこみ ゆみの共 眞寢か渡らむ 長けこの夜を

26) 大君の 命かしこみ 青雲の 棚引く山を 越て來ぬかむ

27) 大君の 命かしこみ 愛しけ 眞子が手離り 島傳ひ行く

28) 이 때 ‘원가’라 함은 권20 · 4328번 외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서두수는 이 작품이 당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소개한다.

29) 판독하지 못한 글자를 나타낸 기호이다. 이하, 같음.

30) 서두수(1942) 『防人歌(사키모리노우타)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월 4일자

與會布θεν있다 그리고 이것은 防人全體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혹한精神이다³¹⁾

결국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서두수는 이들 작품을 근거로 하여 ‘모든’ 병사의 노래에서 ‘충군과 애국’을 읽어내어, 그것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이식’ 시키고자 했다.

3. 김억의 『만엽집』번역

한편 김억은 『만엽집초역(万葉集鈔譯)』과 『선역애국백인일수(鮮譯愛國百人一首)』를 통해 『만엽집』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 『만엽집』의 발췌 번역인 『만엽집초역』은 1943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선역애국백인일수』³²⁾는 1943년 7월 20일부터 같은 신문에 게재되었다.

먼저 『만엽집초역』부터 살펴보자. 김억은 『만엽집초역』이라는 제목 하에 매일신보에 29회³³⁾에 걸쳐 총 60수의 『만엽집』을 발췌 번역했고, 그것을 한자·가나 혼합문(読み下だし文), 원문, 조선어역 순으로 배치하였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가인과 작품의 노래번호(歌番号)만 게재한다.

【1회】 아헤노 이라쓰메(安位女郎) 권4·505³⁴⁾·권4·506, 아헤노 이라쓰메(阿倍女郎) 권4·514, 오토모노 이라쓰메(大伴郎女) 권4·527, 오토모노 모모요(大伴百代) 권4·562

【2회】 가사노 이라쓰메(笠女郎) 권4·596, 오토메(娘子) 권4·639

【3회】 오토모노 사카노우에노이라쓰메(大伴坂上郎女) 권4·659·권4·660

31)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월 7일자

32) 총 100수의 와카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만엽집』의 와카뿐만이 아니라 에도(江戸)시대 가인(歌人)의 와카도 수록되어 있다.

33) 1943년 7월 28일~31일, 8월 3일~4일, 8월 8일~31일

34) 단, 매일신보에 실린 『만엽집초역』에는 각각의 작품에 노래번호가 붙어 있지 않았다.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p.464-469

- 【4회】 오토모노 사카노우에노이라쓰메 권4·688,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 권4·497
- 【5회】 작자 미상 권10·1964, 다카하시노 무시마로(高橋虫麻呂) 권9·1756
- 【6회】 작자 미상 권16·3852, 작자 미상 권14·3443
- 【7회】 작자 미상 권13·3246, 작자 미상 권10·2318
- 【8회】 작자 미상 권10·2159, 작자 미상 권10·2126
- 【9회】 아헤노 오키미치(安位興道) 권8·1642, 다카하시노 무시마로 권9·1750
- 【10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4·498·권4·499
- 【11회】 이와노히메 황후(磐姫皇后) 권2·87·권2·88
- 【12회】 도네리 황자(舍人皇子) 권2·117, 도네리 오토메(舍人娘女) 권2·118
- 【13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69·권2·200
- 【14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37, 요사미노 오토메(依羅娘女) 권2·140
- 【15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33·권2·136
- 【16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208,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³⁵⁾ 권2·231
- 【17회】 가스가노 오키미(春日王) 권3·243, 아마베노 아카히토(山部赤人)³⁶⁾ 권3·321
- 【18회】 오토모노 타비토(大伴旅人) 권3·331·권3·333
- 【19회】 오토모노 타비토 권3·338·권3·343
- 【20회】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4·권3·346
- 【21회】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9, 사미만제(沙弥满誓) 권3·351
- 【22회】 가사노 카나무라 권3·365,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3·462
- 【23회】 오토모노 후미모치(大伴書持) 권3·463,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3·465
- 【24회】 하니시노 미미치(土師水道) 권4·557, 오토모노 타무라가의 다이쥬(大伴田村家の大嬢) 권4·756
- 【25회】 죠테우토베노 우시마로(上丁有度牛麻呂) 권20·4337, 아마노우에노 오후라 권5·801
- 【26회】 아키노오키노 오비토마로(商長首麻呂) 권20·4344,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19·4146
- 【27회】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³⁷⁾ 권15·3624, 아마노우에노 오후라³⁸⁾

35) ‘가사노 카나무라(笠金村) 가집’의 오기이다.

36) ‘다카하시노 무시마로 가집’의 오기이다.

37) ‘작자 미상’의 오기이다.

38) ‘오토모노 야카모치’의 오기이다.

권19·4165

【28회】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19·4199

【29회】 작자 미상 권16·3846, 작자 미상 권16·3847

그런데 김억의 『만엽집』번역스타일은 어떠했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서두 수와는 다르지만 김억에게도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철저한 룰이 있었다. 31음 곧 5·7·5·7·7로 된 와카를 초장이 3·4·3·4이고 종장이 3·5·4·3으로 끝나는 ‘양장(兩章)시조형’으로 번역한다는 규칙이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권4·639³⁹⁾

이몸을(3) 아니넛고(4) 생각을(3) 하는탓가(4)

쭈속을(3) 그님이뵈여(5) 잠못이뤄(4) 하노라(3)⁴⁰⁾

이와 같은 규칙은 31음이 아닌 38음 곧 5·7·7/5·7·7로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선두가(旋頭歌)에도 엄격하게 지켜졌다.

권16·3852⁴¹⁾

바다야(3) 죽을거(4) 山亦是(3) 죽을거라(4)

죽길래(3) 물이나가고(5) 풀마른가(4) 하노라(3)⁴²⁾

김억이 『만엽집』을 번역할 때 그 형식에 관계없이 5구체(句體)인 단가(短歌)나 6구체인 선두가를 모두 조선인에게 익숙했던 양장시조형으로 옮겼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당시의 조선인에게 『만엽집』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⁴³⁾

39) 吾背子かかく戀ふれこそぬばたまの夢に見えつゝいねらえすけれ(吾背子我 如是戀禮許會 夜于玉能 夢所見管 寐不所宿家禮)

40)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4

41) 鯨魚とり海や死よる山や死よる 死ぬれこそ海は潮干て山は枯よれ(鯨魚取 海哉死爲流 山哉死爲流 死許會 海者潮干而 山者枯爲禮)

42)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5

43) 김억이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양장시조형을 선택한 이유와 그에 대한 선행연구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김억은 어떤 의도에서 『만엽집』의 조선어역인 『만엽집초역』을 발표했던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언급으로 가장 빠른 것은 필자가 아는 한 고(故)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다. 그는 『친일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김억이 『만엽집』을 번역한 것을 ‘친일’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일제 말엽의 번역문학對米戰의 결과인 반미사상으로 영미문학의 번역이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문학의 조선어역과 조선문학의 일어역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국어보급운동**과 내선문화 교류에 직결되는 문제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萬葉集』⁴⁴⁾이나 『愛國百人一首』, 『天皇陛下御歌』⁴⁵⁾같은 종류의 번역은 직접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역할도 적지 않았다. **친일문학의 종범적(從犯的) 위치를 점하는 것**⁴⁶⁾

결국 임종국은 김억이 『만엽집』을 번역함으로써 ‘국어(國語)’ 곧 일본어 보급운동에 참여했고,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데 협력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김억은 『만엽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외가를 번역했을까? 예를 들어 『만엽집초역』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 있다.

【제27회】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19·4165⁴⁷⁾

大丈夫 이 世上서 이름을 내일것이 이 後世 들을사람은 다시전해 주오○

이 작품은 ‘용사의 명예를 고무시킬 것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 한 수와 단가’라는 제사(題詞) 아래 불린 장가(長歌)의 반가(反歌)이다.

이처럼 『만엽집초역』에는 태평양전쟁시기에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암송시켰을 것 같은 노래가 실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작품보다는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노래’, ‘황자(皇子)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 ‘음주를 찬미하는 노래’, ‘봄을

박상현(2009) 『김억의 『만엽집초역』 연구』 일본어문학 제4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220-221

44) 『만엽집초역』을 가리킨다.

45) 『天皇陛下御歌』는 이광수의 『天皇陛下御歌』를 가리킨다.

46) 임종국(1983)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년 8월) pp445-446

47) ますらをは名をし立つべし 後の代に聞きつぐ人も語りつぐがね(大夫者 名乎之立倍之 後代爾 聞繼人毛 可多里都具我祢)

배경으로 꽃과 새를 읊은 노래' 등과 같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작품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33⁴⁸⁾

맷넙은 사로사로 길까지 노래건만 一片心 쉰나신님야 니즐길이 잇으리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36⁴⁹⁾

靑노새 거름거리 이닷도 바른지고 어느덧 님계신곳이 구름쑈에 잇더라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37⁵⁰⁾

길산에 지는 丹楓 ○건만 고요하라 우리님 계신곳이나 바라볼가 하나니

요사미노 오토메 권2·140⁵¹⁾

생각을 말라하나 그언제 만나는가 그간곳 알길업스나 생각절로 나더라

B. '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노래'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208⁵²⁾

가을山 丹楓닷가 님께서 걸일현○ 더듬어 보고저하나 山길몰라 하나니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3·462⁵³⁾

48) 小竹の葉はみ山にさやにさやげども われは妹思ふ別れ來ぬれば(小竹之葉者 三山毛
清爾 亂友 吾者妹思 別來禮婆)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의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군'은 보통 '이와미 상문가(石見相聞歌)'라 한다.

인용은 『만엽집초역』에서. 이하 같음.

49) 靑駒の足掻きをはやみ雪みにぞ 妹があたりを過ぎて來にける(靑駒之 足搔乎速 雲居
會 妹之當乎 過而來計類)

50) 秋山に落つるもみぢ葉しましくは な散り亂れそ妹かあたり見む(秋山爾 落黃葉 須臾
者 勿散亂會 妹之當將見)

51) な思ひと君はいへどもあはむ時 いつと知りてかわか戀ひざらむ(勿念跡 君者雖言 相
時 何時跡知而加 吾不戀有牟)

52) 秋山の黃葉を茂み迷ひぬる妹を 求めむ山道らずも(秋山之 黃葉乎茂 迷流 妹乎將求
山道不知母)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의 '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노래군'은 일반적으로 '음혈애통가(泣血哀慟歌)'라 한다.

53) 今よりは秋風寒く吹きなむを いかにかひとり長き夜をねむ(從今者 秋風寒 將吹焉
如何獨 長夜乎將宿)

오토모노 야카모치의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노래군'은 보통 '망첩비상가군(亡妾悲傷歌群)'이라 부른다.

갈바람 인제부터 우수수 불을것을 혼자서 기니긴밤을 어니썰가 하노라
 오토모노 후미모치 권3·463⁵⁴⁾
 긴긴밤 혼자자기 참말로 어렵다고 그대의 말씀들으니 간님생각 납니다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3·465⁵⁵⁾
 이인세 無常타고 생각은 한다만은 갈바람 하슬々하니 옛님생각 나더라

C. ‘황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169⁵⁶⁾
 햇볕은 비취건만 밤하늘 달어지네 그가치 님이가시니 그를앗겨 하노라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권2·200⁵⁷⁾
 저하늘 다스옵는 놓주신 님이시매 세월이 가면갈수록 생각더욱 곱소라

D. ‘음주를 찬미하는 노래’⁵⁸⁾

오토모노 타비토 권3·338⁵⁹⁾
 헛되인 쓴생각을 무어라 하올건가 그보다 술잔든게 나흔일가 하노라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3⁶⁰⁾
 갑가는 사람으로 行世를 못할진댄 차라리 술○이되야 술과가치 살○저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4⁶¹⁾
 무어라 말을할가 알밋지 짝이업네 어된채 술안먹는건 원승인가 하노라

54) 長き夜をひとりやねむと君云へば 過ぎにし人のおもほゆらくに(長夜乎 獨哉將宿跡 君之云者 過去人之 所念久爾)

55) うつせみの世は常なしと知るものを 秋風寒みしぬびつるかも(虚蟬之 代者無常跡 知物乎 秋風寒 思努妣都流可聞)

56) あかねさす日は照らせれど ぬばたまの夜渡る月の隠らしく惜しも(茜刺 日者雖照有鳥玉之 夜渡月之 隱良久惜毛)

‘히나미시(日並) 황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군’의 한 작품이다.

57) ひさかたの天知らしぬる君故に 日月も知らに戀ひ渡るかも(久堅之 天所知流 君故爾 日月毛不知 戀渡鴨)

‘다케치(高市) 황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노래군’의 한 작품이다.

58) 오토모노 타비토의 ‘음주를 찬미한 노래군’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59) 驗なき物を思はずは一坏の 濁れる酒を飲むべくあるらし(驗無 物乎不念者 一坏乃濁酒乎 可飲有良師)

60) なかなか人にあらずは 酒壺になりてしがも酒に染みなむ(中中二 人跡不有者 酒壺二 成而師鳴 酒二染嘗)

61) あな醜賢しらをすと 酒飲まぬ人をよく見は猿にかも似む(痛醜 賢良乎爲跡 酒不飲人乎熟見者 猿二鴨似)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6⁶²⁾

夜光珠 조타해도 술도곤 못하오리 한잔을 마시고나니 마음상쾌 하더라

오토모노 타비토 권3·349⁶³⁾

이 人生 그뉘라서 한번야 안죽을고 그러매 사는동안을 놀고지고 하리라

E. ‘봄을 배경으로 꽃과 새를 읊은 노래’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19·4146⁶⁴⁾

개여울 차차와서 물새가 우는고야 아닌밤 잠앤어외속 못내寂々 하오라

결국 김억은 『만엽집초역』에서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노래’를 통해서는 **일본인의 가족애**, ‘황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에서는 **천황가에 대한 일본인의 공경**을, ‘음주를 찬미하는 노래’와 ‘봄을 배경으로 꽃과 새를 읊은 노래’를 통해서는 **일본인의 풍류**를 식민지 조선인에게 각각 느끼게끔 했던 것이다.⁶⁵⁾

그럼 다음으로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⁶⁶⁾에 대해 살펴보자.

1943년 7월 20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선역애국백인일수』에는 총 100수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만엽집』의 노래(歌)는 총 23수다.⁶⁷⁾ 그리고 이들 와카는 ‘일본어-조선어’ 곧 ‘대역’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62) 夜光る玉といふとも酒飲みてこゝろをやるにあにしかめやも(夜光 玉跡言十方 酒飲而 情乎遣二 豈若目八目)

63) 生者遂にも死ぬるものにあらばこの世なる間は楽しくをあらな(生者 遂毛死 物爾有者 今生在間者 樂乎有名)

64) 夜くたちね覺めてをれば河瀬とめ心もしぬに鳴く千鳥かも(夜具多知爾 寐覺而居者 河瀬尋 情毛之努爾 鳴知等理賀毛)

오토모노 야카모치의 ‘봄을 배경으로 꽃과 새를 읊은 노래군’은 ‘옛추수음(越中秀吟)’이라 한다.

65) 박상현(2009) 『김억의 『만엽집초역』 연구』 일본어문학 제4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225-226

66) 『선역애국백인일수』는 1943년에 동경에서 출간된 일본문학보국회(편)의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를 번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129

67) 김억이 일본문학보국회(편)의 『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옮기게 된 것은 매일신보사에 소속된 이노우에 오사무(井上収)의 권유 때문이었다.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 2-2 한국문화사 p.475

한자에는 한자 읽는 방법(振り仮名)이 달려 있다.⁶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김억은 『만엽집초역』에서 와카의 5음·7음·5음·7음·7음을 조선어로 옮길 때, 양장시조형 곧 3음·4음·3음·4음 / 3음·5음·4음·3음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이런 번역 스타일은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김억이 『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번역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선역애국백인일수』의 ‘권두소언(卷頭小言)’이다. 즉 그는 이 작업이 ‘황국신민화’와 ‘국어 보급’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愛國百人一首란 大體 그內容이 엇던것인가, 그輪廓이나마 보여주는 同時에 **皇民** 化와 **國語普及**과의 두가지 운동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譯者로의 다시 없는 榮光이외다⁶⁹⁾.

『선역애국백인일수』에 담겨 있는 김억의 번역 의도는 그에게 부탁을 받고 서문을 써 준 조선문인보국회 회장인 야나베 에자부로(矢鍋永三郎)의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선역애국백인일수』의 서문적인 ‘서(序)’에서 특히 황국신민화와 일본 정신의 보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급속히 **황국화**하고 있는 현재의 조선에서는 **일본정신의 보급** 및 그 철저함이 무엇보다도 급격히 요망되는데, 이번 번역 작업이 이와 같은 요청에 지극히 유력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⁷⁰⁾

여기서 나오는 ‘일본정신(日本精神)’이란 충군의 순정, 국체 예찬, 경신과 조상 숭배의 근본 정신 등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⁷¹⁾ 한마디로 말해 천황에

68)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선역애국백인일수』는 1944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선역애국백인일수』로 출간된다. 본고에서는 단행본으로 나온 『선역애국백인일수』를 참고했다.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74

69)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74

70) 박경수 편(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74

71) 川田順(1943) 『愛國百人一首評釈』朝日新聞社 pp.25-30

대한 충성심과 제국 일본에 대한 애국심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번역한 김억도, 그의 부탁을 받고 『선역 애국백인일수』의 서문을 써 준 야나베 에자부로도 모두 식민지 조선에 지금 ‘황국신민화’와 ‘국어 보급(및 그것을 통한 일본정신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절심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황국신민화’와 ‘국어 보급’에 적절한 출판물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애국백인일수』와 같은 애국을 읊은 작품이고, 식민지 조선에 그런 작품의 조선어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김억이 『선역애국백인일수』를 발표한 것은, 첫째 『애국백인일수』를 식민지 조선에 소개하기 위해서였고, 둘째 그것을 통해 황민화를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서였다.⁷²⁾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위해 번역된 『선역애국백인일수』에는 어떤 와카가 수록되어 있었을까(단, 원문에 있는 루비는 인용문에서 생략).

가키모토노 히토마로, 권2·235⁷³⁾

우리님 높고크사 現神이 그오시매 구름속 우레산우에 게오실림 집시네
나가노 오키마로, 권2·238⁷⁴⁾

‘어엿차 魚網치자 모도들 이리되게’ 뱃사람 웨치는소리 땀안까지 들녀라
오토모노 타비토, 권6·956⁷⁵⁾

높으신 우리님은 어느곳 다스실고 天下에 德높으시니 예고저가 잇오라
다카하시노 무시마로, 권6·972⁷⁶⁾

千百萬 軍勢라도 잠갓코 달녀들어 단번에 부실壯士는 그대신가 하노라
야마노우에노 오키라, 권6·978⁷⁷⁾

大丈夫 世上났다 헛되이 씌울것가 이름을 千秋에남길 크나큰일 하과저
야마베노 아카히토, 권6·927⁷⁸⁾

72) 박상현(2009) 『식민주의와 번역』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91

73) 大君は神にしませば天雲の 雷の上に慮せるかも

인용은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 이하 같음.

74) 大宮の内まで聞ゆ網引すと 網子ととのふる海人の呼声

75) 安見しわが大王の食国は 大倭も此處も同じとぞ念ふ

76) 千軍の軍なりとも言撃せず 取りて來ぬべき男とぞ念ふ

77) 士やも空しかるべき萬代に 語りつぐべき名は立てずして

넓은손 山과들에 산양군 擧動보소 웨치며 화살들고서 여저기로 돌더라
견당사사절의 모(遣唐使使人母), 권6·179179)

길손이 쉬는들에 서리가 내려드란 鶴들이 나래를버려 그들덜어 주소라
아베노 이라츠메(安倍女郎), 권4·506⁸⁰⁾

이남아 걱정일량 애當初 마실것이 만일에 일곳잊어란 물불인들 외다리
가사노 카나무라, 권3·364⁸¹⁾

힘주어 살놓으니 貫革을 딱맞인다 後人들 壯士라하며 얘기얘기 傳하리
아마노이누카이노 오카마로(海犬養岡麻呂), 권6·996⁸²⁾

聖代에 태인樂을 이저서 알았노라 繁榮은 天地와함께 끝일길이 없어를
유키노 야카마로(雪宅麻呂), 권15·3644⁸³⁾

御命을 받자옴고 선뜻이 나선이몸 어디나 배닿는곳서 쉬고자고 하리라
오노노 오유(小野老), 권3·328⁸⁴⁾

가든꽃 滿發하니 香氣가 天地로다 꽃인양 우리 ‘나라’도 繁華繁華 하더라
다치바나노 모로에(橘諸兄), 권17·3922⁸⁵⁾

오는눈 白髮일시 이머리 셀때까지 우리님 섬길량이면 무슨恨이 있오라
기노 키요히토(紀清人), 권17·3923⁸⁶⁾

원하늘 덮어싸고 흰눈이 내려오네 높으신 님의威德도 저런신가 하노라
후지이노 모로아히(葛井諸會), 권17·3925⁸⁷⁾

正初에 풍성풍성 흰눈이 널오는양 아마도 今年年事は 大豊인가 하노라
오토모노 야카모치, 권18·4097⁸⁸⁾

넙끼서 다스시는 이聖代 즐겁을시 東便도 ‘미치노쿠’ 선 黄金꽃이 피나니
다지히노 타카누시(多治此鷹主), 권19·4262⁸⁹⁾

唐나라 가는壯士 이잔을 드사이다 無事이 일다보시고 하로밧비 오소서

78) あしびきの山にも野にも御獵人 得物矢手挟みみだれたり見ゆ

79) 旅人の宿りせむ野に霜降らば わが子羽ぐくめ天の鶴群

80) わが背子のはものな念ほし事しあらば 火にも水にも吾なけなくに

81) 丈夫の弓上振り起し射つる矢を 後見む人は語りつぐかね

82) 御民吾生ける験あり天地の 栄ゆる時に遇へらく念へば

83) 大君の命かしくみ大船の 行のまにまにやどりするかも

84) あをによし寧樂の京師は咲く花の 薫ふがごとく今さかりなり

85) 降る雪の白髪までに大皇に 仕へまつれば貫くもあるか

86) 天の下すでに覆ひて降る雪の 光を見れば貫くもあるか

87) 新しき年のはじめに豊の年 するすとならし雪の降れるは

88) 天皇の御代栄えむと東なる みちのく山に金花咲く

89) 唐国に往き足らはして帰り來む 益荒猛夫に御酒たてまつる

하세즈카베노 히토마로(丈部人麻呂), 권20·4328⁹⁰⁾
 御命을 받자온몸 父母가 그무엇고 다만지 海岸을거쳐 난바다로 갈거나
 사카타베노 마로(坂田部麻呂), 권20·4342⁹¹⁾
 나무로 진집같이 어머니 계웁소서 나이는 잡수시어도 얼굴變치 마소서
 오토네리베노 치후미(大舍人部干文), 권20·4370⁹²⁾
 ‘카시마’ 神前에서 武運을 고이빌고 선뜻이 戰場나서니 마음튼튼 하오라
 이마마츠리베노 요소후(今奉部與曾布), 권20·4373⁹³⁾
 이賤身 높으신님 방패로 나서노라 이저것 오늘부터야 돌볼줄이 잇오라
 오타베노 아라미미(大田部荒耳), 권20·4374⁹⁴⁾
 갈집에 劔을꽃아 등에다 둘러메고 神明과 武運빌면서 ‘츠크시’島 가노라
 감히토베노 코오시오(神人部子忍男), 권20·4402⁹⁵⁾
 父母님 험한길에 후여나 일잇을가 神明과 幣物들이고 一路平安 비노라

방금 살펴본 와카 가운데에는 권4·506번 작품과 같이 ‘사랑의 노래(相聞)’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다.⁹⁶⁾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천황과 관련된 노래’(권2·235, 권2·238, 권6·956, 권6·996, 권17·3922, 권17·3923, 권17·3925, 권18·4097), ‘천황에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로 선전된 병사의 노래’(권20·4328, 권20·4342, 권20·4370, 권20·4373, 권20·4374, 권20·4402), ‘당나라에 파견되는 사절에 관한 노래’(권6·1791, 권19·4262), ‘신라에 파견되는 사절에 관한 노래’(권15·3644), ‘수도인 나라를 찬미하는 노래’(권3·32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선역애국백인일수』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된 『만엽집』은 기본적으로 충군과 애국의 와카들이었다.

90) 大君の命かしくみ磯に觸り 海原渡る父母を置きて

91) 眞木柱ほめて造れる殿のごと いませ母刀自面變りせず

92) 霰降り鹿島の神を祈りつゝ 皇御軍に吾は來にしを

93) 今日よりはかへりみなくて大君の しこの御盾と出で立つ吾は

94) 天地の神を祈りて幸矢貫き 筑紫の島をさして行く吾は

95) ちはやぶる神の御坂に幣奉り 齋ふいのちは父母が為

96) 여기서 아베노 이라즈메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방의 곁에 남아있겠다고 노래한다.

4. 결론

최근 한국의 일문학계에서 대중을 위해 『만엽집』을 소개한 것으로는 먼저 구정호(2005)의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살림)이 있다. 또한 줄역(2006)인 『천년의 연가-만엽집』(제이앤씨)과 줄저(2008)인 『일본인의 사랑의 문화사-만엽집』(제이앤씨), 그리고 고용환·강용자(2009)가 공역한 『만엽집』(지만지)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만엽집』전 공자가 아닌 이영희가 쓴 『노래하는 역사』시리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들은 이영희의 영향으로 “『만엽집』은 그 대부분이 고대 한국어로 옮겨졌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남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다)”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 식민지 조선인은 『만엽집』을 이와 같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은 매일신보에 소개된 서두수의 『防人歌(사키모리노 우다) : 치졸한 이식』과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를 통해서 『만엽집』을 충군과 애국의 시가집이라고 기억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김억의 『만엽집초역』을 통해서 『만엽집』을 일본인의 가족애, 천황가에 대한 일본인의 공경, 일본인의 풍류가 표현된 시가집이라고 기억하게 되었다.⁹⁷⁾

일제강점기에 서두수와 김억은 ‘황국신민화’와 ‘국어(國語)’ 곧 ‘일본어’ 보급이라는 확고한 번역의도를 가지고 『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겨 식민지 조선에 소개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번역의도를 전달하기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던 외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일본어-조선어’라는 대역 형식으로 『만엽집』의 외카를 번역하여 식민지 조선인에게 ‘이식’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식민지 조선에 수용된 『만엽집』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력한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번역·소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⁹⁸⁾

97) 결국 번역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소개된 이와 같은 『만엽집』의 이미지들이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협력했을 것이다.

98) 본고는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겸 제42회 한국일본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부경대학교 2012년 4월 14일)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

〈参考文献〉

- 김정운(2012) 『남자의 물건』21세기북스 p.313
-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p.464-469
- 박상현(2008) 『『만엽집초역』의 텍스트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제67집2권 한국일어일
 문학회 pp.77-95
- _____ (2009) 『식민주의와 번역』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91
- _____ (2009) 『김억의 『만엽집초역』 연구』 『일본어문학』 제4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220-221
- _____ (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
 번역교육학회 p.12
- _____ (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32
- 서두수(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월 2-7일자
- 임종국(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pp.219-220
- 川田順(1943) 『愛国百人一首評釈』 朝日新聞社 pp.25-30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7일

게재결정: 8월 01일

<Abstract>

How 『Mannyousyuu』 was Accepted During Chosun Dynasty's Colonial Period
 - 『Mannyousyuu』 centrally translation from Seo Doo Soo and Kim Ok-

Actually, Lee Young Hee's 『Singing History(노래하는 역사)』 series have made a greater impact than 『Mannyousyuu』 until now. Moreover, due to Lee's influence, people remember “『Mannyousyuu』 as a book which has been recited in ancient Korean “and “which mostly covers men and women's secret love story”. However, modern Chosun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didn't think of 『Mannyousyuu』 in such way.

Normal Chosun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membered 『Mannyousyuu』 as a collection of poems and songs about loyalty and patriotism through Maeil Shinbo by Seo Doo Soo's translation and 『One Hundred Patriotic Poems(愛國百人一首)』 by Kim Ok. At the same time, through Kim Ok's 『a translation of selections from the Mannyousyuu(万葉集鈔譯)』, Chosun people remembered 『Mannyousyuu』 as a collection about Japanese family-love and respect toward Japanese emperor.

During the Colonial period, Seo and Kim introduced 『Mannyousyuu』 in Chosun language firmly believing such translation was an act to disseminate Japanese as a national language (國語) in colonial Chosun and to subject the Chosun people under the Japanese yellow chrysanthemum. Also, they strategically chose Waka(和歌) which was thought to be useful to convey their intention and translated 『Mannyousyuu』's "uta(歌)" to transplant a sense that Japanese is true Chosun's language to the Chosun people.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hat 『Mannyousyuu』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translated in order to support Japanese empire's colonial policy.